
원발성 간암과 전이성 간암의 고주파 열 치료의 이해 :

경피적 고주파 열 치료와 개복수술을 한 후 고주파 열 치료의 비교와 종양의 크기와 개수가 치료에 미치는 상관 관계

연세의료원DSA

권문규, 한일권, 정지상, 유제훈, 이제연, 주하중

목 적 : 고주파 소작술의 원리와 치료방법을 이해한다. 간암종양의 크기와 개수와 치료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피적 고주파 소작술과 개복술 한 후 고주파 소작술을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본원에서 고주파 소작을 시행한 총 73(평균연령 : 57, 남자 : 52명, 여자 : 21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범위의 유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5 cm 이상이고 4개 이상인 종양을 가진 그룹을 A군으로, 5 cm 이하이고 3개 이하인 종양을 가진 그룹을 B로 비교하여 고주파치료의 효용성을 비교했다. 경피적인 고주파 소작술은 널리 시술하는데 비하여 개복술 한 후 고주파 소작술은 드물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소작술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했다. 경피적 고주파 소작술 36명, 개복 수술 한후 고주파 열치료 37명 이었다(그 외 복강경을 이용한 고주파 소작술 1명이었다). 원발성 간암(24명)과 전이성간암인 직장암(22명), 대장암(19명), 유방암(2명), 담낭암(1명), 위암(4명), 췌장암(1명)으로 분포했다.

결 과 : 종양의 크기와 개수로 구분한 그룹 A군인 종양에서 12명의 환자가 치료한 부위에 재발이 100% 발생했다. 그룹 A에서 원발성 간암(5명), 전이성간암(7명)이었다. 그룹 B인 종양에서는 61명의 환자에서 10%인 5명의 환자가 재발했다. 그룹 B에서는 원발성 간암(19명), 전이성간암(42명)이었다.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에 따른, 즉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36명)에서는 19%인 7명이 재발하여 2번 반복 시술한 경우가 4명, 3번 반복 시술한 경우가 3번이었다. 개복 수술후 고주파 소작술(37명)에서는 간암이 재발하지 않았다.(위의 결과는 고주파 소작술을 치료받은 부위만을 단순 비교했음,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재발한 종양은 제외, 추적검사는 48시간, 3개월 후 실시)

결 론 : 고주파 소작술에 있어 종양의 크기와 개수가 치료에 중대한 영향인자임을 알았다. 종양의 크기가 5 cm 이하 및 3개 이하일수록 치료효과가 높았다. 원발성 간암에 비해 전이성 간암이 상대적으로 치료효과가 낮았다. 그리고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 보다는 개복수술 후에 고주파 열치료가 소작의 완벽도, 보다 나은 접근시술, 출혈에 대한 지혈, 환자의 무 고통, 그리고 한번에 전이성간암의 외과적 수술접근가능성(primary lesion)면에서 치료효과가 높았다.